

이스라엘과

세계의



미래



ko

# 이스라엘과 세계의 미래

오늘날 인류가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1914년 이전 유럽의 강력한 세습 통치 가문들은 거의 모두 다른 형태의 정부로 대체되었으며, 지구상의 많은 인구가 다양한 형태의 독재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시작된 이 시기는 대체로 세계 각국 정부의 전반적 쇠퇴와 분열의 시기였다. 그러나 완전히 그렇지만은 않다. 바로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재탄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민족은 과거에 자체 정부를 가진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전이나 이후의 그 어떤 민족과도 달리, 그들의 정부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위상을 누렸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와의 보좌”에 앉았다고 기록한다. 역대하 29:23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다. (에스겔 21:25-27). 기원전 606년,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위를 빼앗겼고, 온 민족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사이 바빌론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정복당했으며,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 칙령을 내렸으나, 자신들의 정부를 재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피지배 민족으로, 그들의 땅을 지배하는 어떤 나라의 속국으로 남았습니다. 예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그 지배자였습니다. 서기 69년부터 73년까지 로마 군대의 지도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이 끔찍한 시련 속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세기에 걸쳐 지금까지 지속되었으며,

유대인들은 이를 ‘디아스포라(Diaspora)’ 시대라 부릅니다.

## 예언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율법 제정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에 흩어질 것과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그들이 다시 모일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신명기 29:24과 30:1-6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모든 자손의 마음을 바꾸사 너희가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그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니, 이는 너희가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이 독립을 잃고 흩어지는 시기가 얼마나 길어질지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래 있는 나라였기에 잘못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받게 될 특정 징계적 처벌을 언급한 후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너희가 이 모든 후에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일곱 배로 벌하리라.” 레위기 26:18

이 “일곱 배”의 벌에 대한 경고는 네 번 반복됩니다. 예언 연구자들은 이것이 시간 단위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상징적인 “시간”으로 지정한 것은 360년 단위이며, 이를 일곱 번 합하면 총 2,520년이 됩니다. 이 계산 방식에 대한 성경적 열쇠는 에스겔 4:4-6에 기록되어 있다. 모세의 예언이 이것이 최종적인 벌임을 시사하므로, 우리는 이 벌이 기원전 606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전복되면서 국가적 독립을 상실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기원전 606년부터 2,520년을 계산하면 서기 1914년에 이릅니다. 바로 그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영국 앨런비 장군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 터키군을 축출했고, 유명한 발포어 선언이 발표되었으며, 고대 조국 땅이 전 세계 유대인 난민과 개척자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온주의 운동에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여러 형태의 일시적 좌절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지역 재건과 고대 고향으로의 이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948년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2,520년이 지난 1914년에야 비로소 이 성경적·역사적 민족의 국가적 독립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사슬이 시작된 것입니다.

## 이방인의 시대

1914년 이후 이스라엘의 해방이 지난 완전한 의미는,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명한 교사이자 예언자로 인정하는 예수의 예언을 주목함으로써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제자들이 현 시대의 종말에 대해 묻자 예수는 이렇게 답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니,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러하리라.”(누가복음 21:24). 이 예언 당시 유대 민족(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라 불림)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었으며, 이는 ‘이방인의 시대’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다.

기원전 606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전복된 시기와 맞물려, 선지자 다니엘은 주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주신 예언적 꿈을 해석하며 바벨론을 시작으로 네 세계 강대국의 계승을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아-페르시아, 세 번째는 그리스, 네 번째는 로마였습니다. 1914년 이전에 존재했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로 분할된 로마 제국의 모습은 형상의 발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2:31-45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37절). 이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다. 단순히 그때부터 바빌론을 시작으로 이방인의 지구 지배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 이방인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들까지도 미칠 것임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었다. 다니엘의 예언은 이 시대가 분열된 로마 제국의 시대, 즉 형상의 발가락으로 묘사된 “이 왕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만 지속될 것임을 지적하였다(44절). 그 후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서 있을” 왕국, 즉 정부를 세우실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약속된 메시아의 왕국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때”라 묘사하신 기간은 이스라엘이 국가적 독립을 상실한 “일곱 때”와 동시대를 이룬다. 이는 이방인의 때 역시 1914년에 예언적 종말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성경의 시간 예언은 사건의 완결보다는 그 시작을 가리킨다.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분열된 옛 로마 제국의 잔재가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한 시점을 표시합니다. 또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국가 주권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자유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자기 정부 없이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서, 더 이상 로마나 다른 이방 세력의 속국이 아닙니다.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인구를 보유하며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세계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유 국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해져, 지금은 세계 최강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들은 모세가 예언한 '일곱 때'가 끝날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 중간 사건들

민족들 사이에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중요한 경험들 역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를 묘사하는 예언적 표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 생활”을 “다시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요엘서 3장 1-2절에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을 되돌려 놓을 때에, 내가 모든 나라를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내 백성과 내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과 변론하리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가운데 흩어 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음이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포로됨”이라는 단어는 스트롱 성경 사전(Strong's

Concordance)에 따르면 “과거의 번영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장 9-14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전쟁을 위한 집결이 예언되며, “여호사밧 골짜기”는 “판결의 골짜기”로 묘사됩니다. 이 나라들의 집결에는 전쟁 준비가 수반되는데, 상징적으로 말하면 나라들이 “챙기를 칼로, 낫을 창으로” 만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914년으로 시작된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 예언은 바로 이 시기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 생활”, 즉 과거의 번영을 “다시 가져오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성공과 상대적 번영이 많은 나라들을 그들 대적하여 모이게 한 원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그들의 땅과 관련하여 “열방과 다투실 것”이라는 예언도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예레미야 25:31). 요엘서 3장 2절은 땅의 분할, 즉 분리를 언급한다. 이 또한 실현되었는데, 우리는 이방 국가들이 발포어 선언에 담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했음을

알고 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 땅의 일부를 되찾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땅의 일부만을 통제하고 있다. 창세기 13:14,15

## “두려움”이 아닌 ‘평화’

다른 예언들도 이스라엘 재집결 시기가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임을 드러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라. ...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의 소리를 들었거늘 평안의 소리가 아니더라... 아아! 그 날은 크고 그와 같은 날이 없으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러나 그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0:3-7

이 예언의 의미는 분명하다. 이 역사적인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될 때가 왔을지라도,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할 것임을 강조한다. 즉,

그들에게 즉시 평화와 행복의 시기가 오지 않을 것임을 말한다.

우선, 유대인들은 발포어 선언과 그 후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를 통한 실행에 대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위임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고향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그들의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의 유대인들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잔혹하게 박해받았다. 이 박해는 강도를 더해가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내내 지속되었고, 그 와중에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홀로코스트가 발생하여 6백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되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집을 잃었다.

한편 아랍의 반대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의 문은 추가 이민을 위해 닫혔습니다. 이 고통받는 백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향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시점에 문이 닫힌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이 들은 것은 평화가 아닌 “떨림과 두려움의 소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이한 상황의 조합을 일반적으로 증언하는 또 다른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이 오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하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서 이끌어 내신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하는 말이 있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많은 어부들을 보내어 그들을 잡게 할 것이며, 그 후에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어 그들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16:14-16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그들을 돌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주님께서 "그들을 잡으려고" "어부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다. 이는 1896년 고(故) 테오도르 헤르츨이 설립한 시온주의 단체에 의해 성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부들은 미끼로 물고기를 유인하듯, 시온주의 단체는 수년간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와 그렇게 할 경우 얻게 될 이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약속의 땅으로 유인된 이스라엘인은 많지 않았다. 비록 현대 이스라엘에서 헤르츨은 높은 존경을 받고 있지만 말이다. 그곳의 감동적인 광경 중 하나는 헤르츨을 기리는 기념 정원이다. 그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돌길은 유대 국가의 단계적 진보를 상징한다. 헤르츨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예언은 주님께서 또한 “사냥꾼들을 보내어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보다 강력한 방법이 암시된다. 그중에는 홀로코스트 기간 히틀러의 손에 의한 혹독한 박해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박해 방식은 강도를 더해가며, 결국 살해되지 않은 유럽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을 갈망하게 되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곳으로 가고 싶어 안달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매우 핵심적인 또 다른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강한 손과 펴진 팔과 쓸어부은 진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강한 손과 펴진 팔과 쓸어부은 진노로 너희를 민족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모으리라. 내가 너희를 백성의 광야로 데려가리라.” 에스겔 20:33-35

1914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여러 나라에서 이주하여 약속의 땅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노력과 관련해 많은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예언된 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류 역사상 이 혼란한 시대의 고통과 불확실성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의미에서 ‘민족들의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평화와 안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 칼에서 건져내심

에스겔 예언 38장에는 이스라엘에 임할 미래의 상황 개요가 있습니다. 백성은 평안히 거주하며 안전하게, 혹은 확신하며 살게 될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들이 “칼에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이다(8절).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서, 전쟁과 군사적 분쟁 속에서 현재의 지위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여전히 전쟁 위협이 도사리는 이 세상에서 안보를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

에스겔의 예언은 그들이 땅으로 돌아온 후 어느 시점에 마고그 땅에서 온 상징적 인물 '곡'이 이끄는 '북방'의 공격적인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의 위협을 가할 것임을 드러냅니다. 예언은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개입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을 밝힙니다. 이 구원은 그토록 뚜렷하고 주님의 것이 분명하여, 그분의 이름이 "많은 나라의 눈앞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2,14-23

.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땅으로의 귀환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리라." (에스겔 39:7).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일에 대한

지도를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며, 세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메시아가 그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 새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전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관(冠)을 벗기고, 왕관을 벗겨라.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뒤엎고, 뒤엎고, 또 뒤엎을 것이다. 그 왕관이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받아야 할 자가 올 때까지는. 내가 그에게 주리라" (에스겔 21:25-27). "마땅히 받아야 할 자"란 스데기야가 전복된 후 다윗의 왕좌에 앉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과 그가 이스라엘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높이 올리심을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도다. 통치는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이러하리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의 통치와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는 공의와 정의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만군의 주님의 열렬한 헌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6,7

메시아에 대해 더 예언하며 이사야는 기록하였다: “의로 왕이 통치할 것이요, 공평으로 지도자들이 다스릴 것이니, 사막에 정의가 머물며, 비옥한 땅에 공의가 머무를 것이라. 공의의 열매는 평화가 되며,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리라. 내 백성이 평안한 거처에, 안전한 집에, 고요한 안식처에 살리라.” 이사야 32:1,16-18

## 온 이스라엘

메시아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시기에 살아 있는 자들, 혹은 그 시점 이후에 태어날 자들에게만 축복이 제한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세상이 누릴 미래의 복에 대해 이해하는 바는 성경에 제시된 영광스러운 현실에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 이스라엘,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에는 테오도르 헤르츨과, 비록 지금은 죽음 속에서 잠들어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애쓴 수천 명의 시온주의 동지들도 포함됩니다.

수백 년에 걸친 흩어짐의 지친 세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한 열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은 그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증거를 기다리며 절망 속에서 좌절을 겪더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생생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들도 이제 모두 죽음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흩어지기 전에도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민족이 어느 정도 번영과 평화를 누린 시절도 있었지만,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억압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적 축복에 대한 약속은 이들에게도 주어졌으나, 그들은 그 성취의 증거 없이 죽어갔다.

모세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 세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순종할지니라"(신명기 18:15). 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다른 메시아적 약속들은 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세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증하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한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죽을 몸이로다!' 하시나이다." (시편 90:3). 주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땅의 티끌 속에 잠든 자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다니엘 12:2).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 회복은 에스겔 16:55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음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약속은 예레미야 31:15-17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시기에 관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이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들이 자신들 가운데서 나의 손으로 지은 나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은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야곱의 거룩하신 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마음에 완고한 자는 깨달음을 얻고, 불평하던 자는 교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사야 29:22-24

타락하고 죽어가는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처럼, 야곱도 병과 노쇠로 얼굴이 창백해졌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그는 다시 살아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그의 “자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가 야곱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온 인류에게 건강과 영생, 평화와 안전이 약속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의 미래 왕자들

이미 인용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다.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왕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사야 32:1).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온 땅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시편 45:16). 주님은 “내가 처음과 같이 너희 재판관들을 회복시키고, 처음과 같이 너희 고문관들을 세우리라. 그 후에 너희는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고 예언하셨다. 이사야 1:26

이 마지막 예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 여러 방식을 상기하게 됩니다. 첫째, 모세의 지도 아래 그의 보좌관인 “고문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450년 동안은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의 시대가 왔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정권을 세웠는데, 이곳은 그들의 수도로 여겨졌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는 왕, 즉 메시아를 대표할 고문관과 재판관들의 대응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함께

앞으로 이스라엘의 “의의 도시, 신실한 도시”가 될 것이다.

메시아를 대표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섬길 이들은 각 세대에서 이 높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한 고대의 신실한 자들일 것이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질 이들은 그들의 선조인 의로운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즉 “조상들”일 것이다. 이들은 메시아를 대표하기에 탁월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위대한 율법 제정자 모세가 있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인으로서 총리직을 수행한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전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끝까지 나아가라. 너는 쉬게 될 것이요, 그 날이 끝날 때에 너는 다시 일어나 네게 예비된 상속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 12:13). 여기서 “날들의 끝”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오랜 박해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다시 살아나 자신의 몫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은, 메시아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분명히 세워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언하였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열방] 위에 다스리시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도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들이여,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는 크게 높이 올리우셨도다.” (시편 47:8, 9).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백성을 보호하는 “방패들”에 대해 더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왕국]에서는 해치거나 파괴하는 자가 없으리니 땅이 바다를 덮는 물처럼 여호와의 지식으로 가득할 것임이라.” 이사야 11:9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날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온 세상에 구원의 깃발이 될 것이며, 열국이 그에게로 모여들며 그의 안식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 날에 주께서 두 번째로 손을 펴시어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아시리아와 애굽과 파트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 남아 있는 자들을—되돌려 오실 것이다. 그가 열국 가운데 깃발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땅 끝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이사야 11:10-12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지금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주님께서 결국 회복하실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성경은 메시아의 통치가 천 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조차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 생명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세상의 미래는 분명 영광스러운 것이니—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은 것이다!

## 신약성경의 확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약성경은 구약성경, 즉 유대인의 율법인 모세 오경을 설명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으로 제시합니다(누가복음 1:31-33). 예수님은 세상의 구속자로 죽으셨지만, 신성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31

모든 유대인에게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2:3; 22:15-18).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이 약속된 복의 “씨”로 제시한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느니라. 그가 말하기를 '씨들'이라 하여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 하였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갈라디아서 3:16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에 구속을 이루신 후, 단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높은 생명 차원으로 높이 올리우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강력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의 통치자가 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15; 디모데전서 1:17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편지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와 여자도 없나니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27-29

이는 단순히 참되고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영적 왕국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로 그분과 함께 온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상을 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1-6에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자신의 ‘집’을 충성스럽게 관리했듯이, 예수님도 또 다른 ‘집’을 충성스럽게 관리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서, 이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집의 일부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 집단 모두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환기시킵니다. 그는 고대의 신실한 자들 중 많은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이 “더 나은

부활”에 합당하기 위해 견뎌낸 고난의 일부를 개괄합니다(35절). 여기에 그는 “우리[영적 집의 사람들]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될 수 없었으리라”(40절)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옛 신실한 종들은 먼저 메시아 왕국에서 섬길 헌신과 자격을 입증했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씨”가 완성되기까지 죽음의 잠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후에야 생명의 완전함으로 부활하여 “온 땅의 통치자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씨”는 주로 아브라함의 자연적 후손들로 구성되지만, 영적인 씨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 기회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졌으나, 그들이 예수를 거부한 후 다른 이들에게도 확대되었다.

메시아 왕국에서 어떤 직분으로든 섬길 자들에게 필수적인 주요 자격은 주님께 대한 마음의 헌신, 즉 의의 신성한 원칙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를 위해 부름받을 경우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고대 의인들의 특징이었다. 예수님께서

해당되었으며, 그분의 모든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에게도 해당된다.

## 왕국 세우기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고려하고 믿을 때만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약속들을 불잡고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메시아 왕국의 세움과 그 일에 관한 예언들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 왕국이 현실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 왕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신약성경이 밝히듯이, 그 왕국의 영적 차원에서 그분과 함께 나누게 될 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각 세대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높은 영광에 합당한 자격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 집단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니...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20:6

. 그런 다음,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신성한 그리스도의 인간적 대표자가 될 고대의 의인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상에 앉으리라.” (마태복음 8:11). 누가복음은 여기에 “모든 선지자들”을 덧붙이며, 사람들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들 앞에 앉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3:28,29

## 왕국의 기능

이처럼 메시아의 왕국은 그가 신성하게 임명된 통치자, 즉 왕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재집결된 세대 중,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성한 개입이라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때

살아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메시아적 왕국 체제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 복을 누릴 기회를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새 체제에 충성을 보이는 자들은 순종의 모범을 통해 그 축복을 확장하는 데 협력할 것이다.

이에 관한 예언은 이렇게 기록한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받았으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가 복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정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다시 선을 행하기로 정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니라. 서로 진실을 말하고 너희 법정에서 진실하고 바른 판결을 내리라. 서로 악을 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미워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가랴 8:13-17

여기 제시된 의의 신성한 원칙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의 복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왕국의 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다. 이를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을 포함하게 될 그 위대한 복의 사업에 협력하는 특권도 누리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다른 소중한 왕국 약속은 이렇게 기록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날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손으로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보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속에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각기 이웃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 중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31-34

이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믿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방식이 바로 이랬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 왕국을 통해 인간이 이 완전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창세기 1:27,28). 이 통치권 또한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를 확증하셨다. 그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묘사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염소 같은 성품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양 같았습니다. 이 양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자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34

) 이 비유를 연구해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원래의 통치권을 상속받기 위해 필요한 인격적 자격은 타인에 대한 이기심 없는 관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심은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세기에 걸쳐 치명적인 재앙이 되어 왔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질서 아래에서는 사랑이 이기심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완전한 의미가 모든 인류의 삶의 규칙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모세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신명기 6:5; 레위기 19:18

원죄에서 구속되어 삶의 완전함으로 회복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지침 원칙이 되는 이러한 의의 기준으로, 이 지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왕국 계획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은 후에도 순종과 협력을 거부하는 자들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에 대한 벌은 여전히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복된 인류의 행복을 해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22,23

비록 놀라운 메시아 왕국의 약속들 중 상당수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성경은 이 약속들이 모든 민족의 백성들에게도 성취될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원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재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복을 누릴 기회를 얻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합니다.

## 모든 것의 회복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할 복에 대해 설득력 있게 예언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예언들이 성취될 시기를 “만물이 회복되는 때”라고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창세 아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도행전 3:20,21

베드로가 메시아 왕국의 복에 관한 예언자들의 일치된 증언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할 때, 그는 유대인 청중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25

여기서 베드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만물의 “회복”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아브라함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셨음을 알고 있으며, 베드로는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언으로 그 약속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회복이란 이전 상태로의 복원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신성한 법을 어김으로 영생의 특권을 잃었고, 그들의 자손들은 불완전하고 죽어가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죄와 죽음이 계속해서 땅을 지배하며 모든 민족의 백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초래해 왔습니다.

선지자 다윗은 이 오랜 기간의 인간 고통을 밤의 울음으로 묘사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윗은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는 좋은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시편 30:5). 다시 말해, 죄와 죽음의 재앙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는 미래의 “회복의 시대”를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날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33:24). 이사야는 또한 그때 눈먼 눈이 열리고 귀먹은 귀가 열릴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35:5). 또한 백성들이 집을 짓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65:21,22

진실로 이스라엘과 세상의 미래는 밝습니다.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박국 2:14). 전쟁도, 전쟁의 두려움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상징하듯, 모든 이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안전해질 것입니다. 미가 4:1-4

그 세계 정부의 통치가 가져올 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평화이며, 창조주의 의로운 법이 온 인류에게 존중받고 순종받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윗은 이를 설득력 있게 예언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웃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의가 그 앞에 선구자로 나아가 그의 발걸음을 위한 길을 준비하리라.” 시편 85:11-13